

제11강 어린이와 자캐오

1.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루카 18,15~17)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세리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하셨다는 진술에 이어 어린이들의 단순한 신뢰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질이라는 가르침을 제시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들을 축복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들의 단순한 신뢰를 본받으라고 훈계하신다.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사가는 예루살렘 상경기를 서술하기 위해 9장 48절까지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전통들을, 9장 49절에서 18장 14절까지는 <예수어록>과 자기의 특수자료에서 따온 전통들을 이용했다.

루카는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는 진술을 이혼금지에 대한 가르침(마르 10,1~12)과 부자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마르 10,17~22) 사이에 제시한 마르코 복음과는 달리, 그것을 교만한 바리사이와 겸손한 세리의 기도(루카 18,9~14)와 부유한 젊은 지도자에 대한 진술(18,18~30) 사이에서 서술했다.

루카 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문학양식은 선언문이다. 이 세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제자들(18,15)
- 둘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예수님(18,16)
- 셋째, 하느님의 왕국을 위한 자질인 어린이의 신뢰(18,17)

1.2.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제자들(18,15)

18,15ㄱ :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려와 손을 대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손길은 치유의 힘을 낸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루카 5,13; 6,19),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의 상여에 손을 대셨다.(7,14) 예수님은 죄 많은 여자가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바르는 것(7,39)과 하혈하는 여자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8,44~47)

18,15ㄴ :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고 쓸데없이 그분의 시간을 낭비할까봐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의 자세

를 하느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질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말렸던 것이다.

1.3.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예수님(18,16)

‘어린이들’은 걸음마를 할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나 걸음마 단계를 지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든 아이를 가리킨다(2디모3,15). 이 텍스트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약자들이나 강자들, 죄인들이나 의인들 등 모든 사람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각별히 귀여워하시며 당신 가까이 두려고 하신 이유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손을 대고 계시는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다고 하시지 않고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태도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질이다(루카18,17).

1.4. 하느님 나라를 위한 자질인 어린이의 신뢰(18,17)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어린이들의 자세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상징한다고 여기셨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자세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공간적인 뜻을 가진다.(루카 18,24~25; 사도 14,22; 요한 3,5)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 행위가 실현되는 곳인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죄인은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드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를 받았다(루카 23,42), 그러나 이렇게 죽기 직전의 상황과 달리, 생존했을 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의 뜻은 모호하다. 이 말은 제자들이 평생을 두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왕국에 속한다는 요약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현재 하느님의 왕권을 체험하고(루카 17,21) 고난을 겪은 후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사도 14,22)

1.5.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마태 18,1~5)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마태오는 제자들 사이에 토론을 야기시킨 언쟁에 대해서는 점잖게 언급을 회피한다(마르 9,34; 루카 22,24 참조). 반대로 그는 심오한 함축성

을 담은 ‘하늘 나라에서는’을 덧붙임으로써 오히려 질문을 풍요롭게 한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1절). 이로써 제자들의 야망에서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려는 욕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날의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비유로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 어린이 하나를 놓으신다(2절)

1세기에는 ‘어린이 왕’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미지로 어른들을 감동시키면서 꿈쩍 못하게 하는 광고를 알지 못했다. 고대인은 어린이의 ‘도덕적 순진함’에 대한 불명확한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어린이는 어른을 도와야 했으며 말을 못하므로 모든 이에게 복종해야 했다. 이 점은 안타깝게도 과거지사만이 아니다. 바로 성인도 ‘상속자는 모든 것이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갈라 4,1) 이 말씀은 예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1) 하늘나라의 삶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는데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3절). 그것은 유치한 정신을 발전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당시 사회가 가졌던 어린이의 이미지에 따라 의존과 겸손을 되찾는 것이다.

2) 왜냐하면 작은 이로 간주되는 자, 큰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눈에 중요한 자이기 때문이다(4절)

5절은 다음에 올 경고에 대한 이행을 대신한다. 이번에는 어린이가 나타내는 것과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받아들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법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것을 ‘명시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는 작은 이들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2. 부유한 사람들의 모범인 자캐오(19,1~10)

루카는 예수님을 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자캐오의 이야기를 제시했다. 그는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을 받고,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희사하려 했으며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자세를 보였다.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자캐오에 대한 이야기(루카 19,1~10)는 루카 복음사가의 특수자료이며 그 문학양식은 선언문이다. 이 이야기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과 자캐오의 만남(19,1~6)

(가) 예수님을 뵈려는 자캐오(19,1~4)

(나) 자캐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 예수님(19,5~6)

둘째, 군중의 불평(19,7)

셋째, 자캐오의 결심과 예수님의 변호(19,8~10)

(가) 자캐오의 결심(19,8)

(나) 예수님의 변호(19,9~10)

2.1.1. 예수님과 자캐오의 만남(19,1~6)

(가) 예수님을 뵈려는 자캐오(19,1~4)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이고 또 부자였다.”(루카 19,1~2)

‘자캐오’(‘깨끗한, 결백한’을 뜻함)는 히브리말 ‘자카이’(זכאי): 느헤 7,14; 2마카 10,19)를 그리스말로 발음한 이름이다. 이 이름은 그가 유대인임을 가리킨다.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루카 19,9)도 그것을 시사한다. 자캐오는 세관장이었는데, 예리코에 로마제국의 지방세관이 있었던 것 같다. 세관장 자캐오는 팔레스티나를 장악한 로마제국의 통치자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하 세리를 고용한 사람이었다. 세관장들은 부하 세리들에게서 상납금을 받아 부정축재를 하곤 했다. 자캐오는 부정축재로 많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3절 : 자캐오는 군중과 함께 예리코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뵈려고 애썼다. 그 이유는 그가 헤로데 안티파스(루카 9,9; 23,8)와는 달리 예수께 표징을 찾으려 하지 않고 군중을 불러 모으실 만큼 유명인사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군중 때문에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뵈지 못했다.

4절 : 자캐오는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예수께 극진한 관심을 보였다. 돌무화과나무는 사철 푸른 잎에 식용 과일을 달고 있으며 가지가 넓고 밑의 가지가 높지 않고 굵은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는 참나무와 비슷해 사람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쉬웠다.

2.1.2. 자캐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 예수님(19,5~6)

5절 : 자캐오는 예수께 즉각 응답하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 예수께서 당신을 알고 싶어하는 그를 나무 위에서 불러 내리신 이유는 ‘오늘’ 그의 집에 머무르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 날이 구원의 날임을 의미한다.(19,9; 2,11)

위대하신 예수께서 유다 사회에서 죄인이자 기피인물이며 멸시의 대상인 작달막한 체구의 세관장의 집에 머무르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러 오신 당신의 사명을 밝히시기 위함인 것 같

다. ‘머물러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구원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루카 2,49; 4,43; 9,22)

6절 : 자캐오는 열린 나무 위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 그의 대접은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과 통한다(루카 3,8~14). 자캐오의 처신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세리 레위(루카 5,29)를 연상시킨다. 두 경우 모두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는데도(루카 5,30; 7,34; 15,2 참조) 예수께서는 이 규정을 무시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자캐오는 자기 집을 방문하신다는 예수님의 호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메시아 예수의 방문은 친교와 죄의 용서를 가리키는 표시이며 자캐오의 기쁨은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현존은 기쁨을 창조한다.

2.1.3. 군중의 불평(19,7)

7절 : 예수께서 죄인인 자캐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처신에 대해 투덜거렸다. 그 이유는 율법에서 죄인들과의 상종을 금기로 규정하고(신명 21,20~21) 그들의 집에서 묵는 것을 혐오스러운 짓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세관장들과 그들의 부하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 치부(致富)했기 때문에 유다 사회에서 가증스러운 인간들로 멸시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부정축재자와 함께 식사하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시면서 자캐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파격적인 대우이다. 예수께 투덜대던 사람들은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2.1.4. 자캐오의 결심과 예수님의 변호(19,8~10)

(가) 자캐오의 결심(19,8)

8절 : ‘주겠습니다’, ‘값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자랑 한 것이고 그분의 구원을 받을 자세를 갖추지 못했음을 뜻한다. 또 군중이 자캐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루카 19,7)은 그가 현재 선행을 하고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캐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특혜를 받고 회개를 증명하는 뜻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희사하고 공정하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위의 두 동사는 그의 결심을 가리키는 미래의 뜻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유대인들은 자기 소유의 20%를 희사하는 것은 너그러운 행위라고 여겼지만, 그 이상의 희사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 놓겠다는 자캐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 파격적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기의 많은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

지 못해 가난한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부유한 지도자와는 반대된다. 또 율법에서는 착취나 피해의 20%를 보상해야 하며(레위 5,16; 민수 5,7), 소도둑은 다섯 배(탈출 22,1), 남의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은 네 곱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2사무 12,6). 자캐오는 엄격한 율법규정을 택해 네 곱으로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캐오는 자기가 착취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을 베풀 결심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힘입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물을 선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루카 12,33; 16, 9~13).

(나) 예수님의 변호(19,9~10)

9절 ㄱ: ‘구원’(루카 1,69.71.77)은 자캐오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함을 의미한다. 구원은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오늘’ 그의 집에 임했다. 오늘은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루카 2,11; 4,21) 구원은 자캐오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도 베풀어졌다.

예수께서 자캐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루카 19,9ㄴ) 예수께서는 자캐오가 비록 세관장으로서 죄인 취급을 받지만 무조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는 여기지 않으셨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혈연적 후손을 뜻한다.

10절 :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루카 4,43) 하느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4,18~19). 이 사명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구원하는 목자로 서술되었다. 흩어진 당신 백성을 다시 데려오는 목자, 하느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목자로 자처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다.